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7. Vol. 12, No. 4, 779 - 795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질과 대처양식의 역할

이 경 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중독예방치유센터

이 훈 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전반적인 정신건강의 토대가 되는 부정적 정서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질과 대처양식의 역할을 공분산구조모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 서울 소재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29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사건 스트레스, 기질, 스트레스 대처양식, 그리고 불안과 우울증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신경증기질과 대처양식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며, 생활사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는 신경증기질에 의해 증폭되고 이는 회피 대처양식에 의해 더욱 악화되거나 문제해결 대처양식을 통해서 경감되는 이중매개모형이 생활사건 스트레스, 기질, 그리고 대처양식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단순효과 모형과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질과 대처양식이 병렬적으로 매개한다고 가정하는 병렬매개모형 등의 대안적 모형에 비해 우수한 모형임이 시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안정적인 기질과 대처양식이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관련된 개인의 정서경험을 조절하는데 유용한 개입변인으로 사용될 가능성과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생활사건 스트레스, 기질, 대처양식, 정서경험, 정서장애

우울과 불안은 정신병리의 핵심정서로 독립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최근 장애로 보기보다는 부정적 정서로 종합해서 관련 Barlow, Allen과 Choate(2004)가 제시한 정서장애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경희, (110-999)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중독예방치유센터, FAX : (02) 880-6428, E-mail : miru2you@ngcc.go.kr

에 대한 통합치료(unified treatment)에도 반영되어 있다. 우울이나 불안 증상들은 전반적인 고통이나 부정적 정서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Watson, Clark, & Carey, 1988), 우울과 불안 장애는 서로 높은 공병률을 가지고 있고(Mineka, Watson, & Clark, 1998), 우울이나 불안 장애의 주된 증상들은 정신병리의 주요 요인들을 구성하며, 더 나아가 정신건강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 공병률이란 넓게는 한 개인 안에서 서로 다른 장애가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된다(Lilienfeld, Waldman, & Israel, 1994; Mineka, Watson, & Clark, 1998). 두드러진 우울 발작으로 정의되는 기분장애(mood disorder: APA, 1994)와 불안한 기분이나 행동적 회피(APA, 1994)로 정의되는 불안장애는 그 중 두드러진 공병률을 보이는 장애이다(Mineka et al., 1998). 이러한 공병률의 증거로는 첫째, 기분장애가 불안장애와 강력하게 공병되어 있는 경우이다. Kessler 등(1996)은 주요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인 중 58%가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했다. 반대로, 불안장애로 진단받은 대부분의 개인들이 우울증의 진단기준에도 적합했다(Clark, 1989; Mineka et al., 1998). 둘째, 다양한 불안장애들은 서로 공병률이 높다(예, Brown, Campbell, Lehmann, Grisham, & Mancill, 2001). 예를 들어 Magee, Eaton, Wittchen, McGonagle과 Kessler(1996)는 공황장애로 진단 받은 사람들 중 74.1%, 단순공포증 중 68.7%, 그리고 사회공포증을 보인 사람들 중 56.9%의 사람들이 다른 불안장애의 진단 기준에도 적합했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기분과 불안장애는 약물사용, 신체장애, 섭식장애, 그리고 성격장애 등의 다른 종류의 심

리장애와 높은 공병률을 보인다(Mineka et al., 1998).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우울이나 불안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생활사건 스트레스, 기질, 그리고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개인의 대처양식(coping style) 등이 있다. 이러한 변인들과 불안이나 우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심리장애의 발생과 관련이 높다(Brown, Chorpita, & Barlow, 1996). 여러 연구자들은 스트레스 사건이 불안과 우울을 포함하는 많은 심리적 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불안장애가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 촉발되기 쉽다는 것을 발견하였다(Angst & Vollrath, 1991; McLean & Crowe, 2002).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스트레스와 적응 사이의 관계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생활사건과 질병 사이의 상관은 .30 정도로 추정된다(김정희, 1987; Kessler, Price, & Wortman, 1985; Kobasa, Maddi, & Khan, 1982). 이러한 면에서 보면, 한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신체적 질병이나 심리적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적 특성이 관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생활스트레스 경험과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질이나 대처양식 같은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기질과 기분장애나 불안장애와의 관계를 폭넓게 개관한 연구자들은 Watson과 그의 동료들이다. 그들은 개인차의 광범위한 두 측면에 관심을

집중했는데, 신경증기질(neuroticism)과 외향성기질(extraversion)의 두 기본적인 특질은 거의 모든 기질이론에 포함되어 있다(Clark & Watson, 1999; Watson, Clark, & Harkness, 1994). 이들에 따르면, 이 특질들은 성격의 “Big Two”를 구성한다. 이 두 특질들은 (1) 부분적으로는 선천적인 생리적으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2) 핵심 특징으로 정서과정을 가지고 있다(Digman, 1994). Watson, Gamez와 Simms(2005)가 1990년에서 1992년까지 5533명을 대상으로 행한 NCS(National Comorbidity Survey; Kessler et al., 1996)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경증기질이 기분장애($r=.30$)나 불안장애($r=.20$)와 강한 상관을 보인 반면 외향성기질은 기분장애($r=-.10$)나 불안장애($r=-.18$)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Gamez, Watson과 Doebbeling(2004)이 1991년 걸프전을 치른 상이군인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경증기질은 주요우울증($r=.38$), 범불안장애($r=.31$), 그리고 외상후 장애($r=.35$)와 상관이 높았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특정 우울 또는 불안 증상들과 기질간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Watson et al., 2005), 부정적 기질(negative temperament)은 우울한 기분($r=.41$), 관심이나 즐거움이 줄어들음($r=.40$), 그리고 신경과민/불안($r=.39$)들과 상관은 높은 반면, 긍정적 기질(positive temperament)은 이들 증상들과 부적 상관($r=-.30;-.28;-.23$)을 보였다. Watson 등(2005)이 대학생, 지역사회거주성인, 그리고 임상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우울과 불안증상에 관한 다차원 검사(IDAS; the Iowa Depressed and Anxiety Scales)를 대학생집단에게 실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경증기질은 불안한 정서(anxious affect)와 정적 상관($r=.64$)을, 외향성기질과는 부적 상관

($r=-.27$)을 보였다.

개인의 정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 들로는 대처행동(coping behavior)이 있다.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개인들이 보이는 대처행동들은 일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과정이라고 여겨 지지만(Folkman & Lazarus, 1988), 대처행동이 시간과 서로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 걸쳐 일정하고 안정적이라는 증거도 있다(Costa, Somerfield, & McCrae, 1996; Hewitt & Flett, 1996; McCrae & Costa, 1986; Parkes, 1986). 또한 성격기질이 대처행동의 중요한 장기적인 예언변인이라는 증거도 있다(Vollrath, Torgersen, & Alnaes, 1995). 이러한 대처행동의 지속적인 형태를 대처양식(coping style)이라고 일컫는다. 대처양식 중 주요한 한 가지는 회피대처(avoidance coping)로, 이것은 갈등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행동과 전략을 포함한다(Costa, Somerfield, & McCrae, 1996; Hewitt & Flett, 1996). 비록 회피 대처양식(Gomez, 1988)이나 우울과 불안 증상(Achenbach, 1991)들이 성이나 나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피 대처양식이 우울이나 불안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Gomez, 1988; Seiffge-Krenke & Klessinger, 2000). 이러한 결과들은 회피 대처양식이 불안과 우울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질특질들과 대처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대처양식을 광범위하게 접근(approach)과 회피(avoidance)의 두 영역으로 나누었을 때(Billings & Moos, 1984; Herman-Stahl, Stemmler, & Petersen, 1995; Jorgensen & Dusek, 1990), 접근대처양식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라고 여겨지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둔 전략을 포함한다. 접근대처양식을 행동양식과 인지양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Compas, 1987; Kavsek & Seiffge-Krenke, 1996; Seiffge-Krenke, 1992), 행동접근대처에는 사회적 지지와 정보를 찾는 행동이 포함되는 반면, 인지접근대처양식에는 문제 해결을 다루는 전략을 포함한다. 물론 이 두 접근대처행동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Kavsek & Seiffge-Krenke, 1996; Seiffge-Krenke, 1992). 이러한 연구들에서 외향성기질은 접근대처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그리고 회피대처행동과는 부적의 상관을 보여주는 결과가 있다(Amirkhan, Risinger, & Swickert, 1995; Bolger, 1990; Martin, 1986; McCrae & Costa, 1986; Parkes, 1986; Rim, 1987). 또한 신경증적기질은 회피대처양식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Bolger, 1990; Endler & Parker, 1990; McCrae & Costa, 1986; Parkes, 1986; Rim, 1987), 접근대처양식과는 부적의 상관을 보였다(Amirkhan, Risinger, & Swickert, 1995; Endler & Parker, 1990; Epstein & Meier, 1989).

선행 연구들을 개관해 보면, 생활사건 스트레스, 기질, 대처양식과 불안이나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질과 대처양식은 둘 다 개인의 정서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이며 정서장애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는 불안과 우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발생하고 지속되며 변화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질과 대처양식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매개변인이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정의된다(Baron & Kenny, 1986; Holmbeck, 1997; James & Brett, 1984). 즉 매개변인이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기제라고 볼 수 있다(Baron & Kenny, 1986). 만약 본 연구에서 기질과 대처양식이 사람들이 생활사건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면,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한 개인의 부정적 정서의 경험은 생활사건 스트레스보다는 그들의 기질이나 대처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MacKinnon & Dwyer, 1993). 따라서 앞서 개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입각해 기질과 대처양식이 생활사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및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공분산구조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음의 3가지 모형들을 검증하였다. (1) 단순효과모형에서는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기질, 그리고 대처양식이 서로 독립적으로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단순효과모형에 따르면,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질과 대처양식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생활사건 스트레스, 기질, 대처양식이 서로 독립적으로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2) 병렬매개모형에서는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질과 대처양식이 병렬적으로 매개한다고 가정한다. 병렬매개모형에 따르면, 기질과 대처양식이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나, 기질과 대처양식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3) 이중매개모형에서는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질이 매개를 하고, 기질이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처양식이 매개를 한다고 가정한다. 이중매개모형에 따르면, 기질은 생활사건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대처양식은 기질이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즉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는 생활사건 스트레스보다는 기질이나 기질과 밀접히 관련된 대처양식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방 법

참여자

서울 소재 온라인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299명(남자 66명, 여자 233명)이 참가하였으며, 연령 범위는 19세에서 62세까지였고(남 21세~62세, 여 19세~55세)였고, 평균 연령은 34.66세(남 39.86세, 여 33.18세)였다. 전반적으로 20대에서 30대가 전체의 76%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남녀집단 간의 연령차는 $t(298)=6.12, p<.001$ 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

이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인들에서의 행태에 관심이 있으므로 오히려 연령층이 20대에 몰려있는 일반 대학생보다는 일반인들이 수강을 많이 하는 온라인 대학에서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의 연령대별 분포는 이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하겠다.

측정도구

한국판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EPQ; Eysenck & Eysenck, 1985). 신경증기질, 외향성, 정신증기질(psychoticism), 그리고 허위성 등을 측정하는 81문항으로 되어있는 성격 질문지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현수(1985)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Eysenck의 한국판 성격차원검사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성격차원 검사는 총 79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기질과 외향성을 재는 3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Eysenck의 한국판 성격차원검사의 소척도별 신뢰도는 외-내향성은 .80에서 .78까지, 신경증적 경향성은 .78에서 .74까지였다(유희정, 1990).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계수 $\alpha=.71$ 였다.

한국판 Coping Orientation to the Problems Experienced(COPE ;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대처양식을 “문제해결접근”, “사회적 지지추구”, “회피대처”, 그리고 “긍정적 수용”의 정도를 측정하는 53문항의 질문에 4점 척도로 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옥주(2002)가 번안한 한국판 COPE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COPE의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문제해결 접근이 내적일관성 계수 $\alpha=.76$,

사회적 지지추구가 내적일관성 계수 $\alpha=.69$, 회피 대처가 내적일관성 계수 $\alpha=.71$, 그리고 긍정적 수용이 내적일관성 계수 $\alpha=.69$ 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개관에서 부정적 정서와 일관성 있는 상관을 보여준 문제해결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그리고 회피대처에 대한 결과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계수 $\alpha=.85$ 였다.

한국판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Spielberger, Gorsuch, & Lushene, 1970). 이 도구는 기질적인 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예, “나는 초조하고 신경질적으로 느낀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척도로 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판 STAI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STAI는 김정택과 신동균(1978)의 연구에서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의 내적일관성은 각각 내적일관성 계수 $\alpha=.86$, 내적일관성 계수 $\alpha=.87$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계수 $\alpha=.95$ 였다.

한국판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Beck, Ward, Mendelson, Mock & Erbaugh, 1961). 우울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증상을 측정하는 21개의 자기보고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번안한 한국판 BDI를 사용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은 내적일관성 계수 $\alpha=.98$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계수 $\alpha=.82$ 였다.

한국판 Life Event Survey(LES; Sarason, Johnson, & Siegel, 1978). 개인의 생활에 변화

와 영향을 줄 수 있는 57건의 생활경험들이 최근 3개월 동안 출현한 빈도와 그 여파의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지이다. 경험의 유무와 함께 그 경험의 영향을 매우 나쁜(-3)에서 매우 좋은(+3)의 7점 척도에 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1993)가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계수 $\alpha=.97$ 였다.

자료분석

응답 자료들의 전반적인 기술 통계와 상관분석을 위해 SPSS 12.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검증을 위해 Amos 4.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시행하였으며, 모형의 적절성과 부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홍세희(2000)의 논문에서 권한 GFI(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및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부합치들은 .90 이상이면 합당한 모형으로 보며, RMSEA는 .05 미만이면 좋은 모형, .08보다 작으면 합당한 모형, .10보다 크면 나쁜 모형으로 간주한다(홍세희, 2000).

결 과

성별에 따른 분석

본 연구에서 남녀의 표본 수의 불균형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다

른 각 변인별 차이는 종속변인인 불안과 우울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불안과 우울 점수는 여성 표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이나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과(Nolen-Hoeksema, 1987, 1990) 일치하는 결과로, 남녀 간의 표본 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표본이 일반적인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고 가정된다. 남녀 간의 차이가 종속변인인 불안과 우울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독립변인의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 후의 분석에서 성별을 따로 통제하지는 않았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먼저,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각 척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각 척도들 간의 상관을 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부정적인 생활사건은 신경증기질($r=.22, p<.01$), 우울 증상($r=.45, p<.001$), 그리고 불안 증상($r=.38, p<.001$)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외향성 기질은 신경증기질과 약한 역상관($r=-.14, p<.05$)을 보였을 뿐 유의한 상관을 보인 변인은 없었다. 신경증기질은 불안($r=.58, p<.001$), 우울($r=.54, p<.001$)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문제해결 대처와는 역상관($r=-.17, p<.001$)을 회피대처와는 높은 상관($r=.42, p<.001$)을 보였다. 대처양식 중, 문제해결 대처는 사회적 지지추구와 높은 상관($r=.26, p<.001$)을 보

표 1. 성별에 따른 각 측정 변인들 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남자 <i>M(SD)</i>	여자 <i>M(SD)</i>	<i>t</i>
생활사건스트레스	94.00(9.87)	87.00(9.43)	.05
신경증기질	4.97(3.34)	5.74(3.14)	-1.68
문제해결	60.43(4.29)	59.80(6.65)	.73
회피대처	32.37(5.55)	32.71(6.00)	-.41
BDI	6.25(5.62)	8.08(6.97)	-1.86**
STAI	44.14(11.94)	50.26(15.45)	-2.10**

** $p<.01$

표 2. 각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i>M(SD)</i>	1	2	3	4	5	6	7
1. 생활사건스트레스	7.41(9.57)							
2. 외향성기질	4.86(2.86)	-.09						
3. 신경증기질	5.57(3.20)	.22**	-.14*					
4. 문제해결	60.0(6.21)	-.10	.10	-.17**				
5. 사회적지지	27.5(4.60)	-.09	.11	.13	.26***			
6. 회피대처	32.7(5.90)	.10	.05	.42***	-.08	.13*		
7. BDI	7.70(6.74)	.45**	-.02	.54***	-.20***	-.04	.40***	
8. STAI	49.0(15.00)	.38**	-.06	.58***	-.26***	-.06	.31***	.72***

* $p<.05$, ** $p<.01$, *** $p<.001$

였고, 불안($r=-.26, p<.001$)이나 우울($r=-.20, p<.001$)과는 역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양식은 회피대처양식과 약간의 상관($r=.13, p<.05$)을 보였을 뿐 불안이나 우울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회피대처양식은 불안($r=.31, p<.001$)이나 우울($r=.40, p<.001$)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불안과 우울은 서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r=.72, p<.001$).

공분산구조분석을 이용한 모형 검증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기질, 그리고 대처양식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질과 대처양식 중 불안이나 우울과 유의하게 상관된 신경증기질과 회피대처양식, 그리고 문제해결 대처양식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신경증기질을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대처양식을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여 문제해결 대처양식과 회피대처양식을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대처양식 중 회피대처와 문제해결대처와 유의한 정적 상관만을 보일 뿐 다른 변인들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은 사회적 지지추구대처는 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는 대처양식에서 부정적 정서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관되어 있는 회피대처와 문제해결대처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여 모형의 검증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종속변인을 부정적 정서란 잠재변인으로 설정하고 불안과 우울을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론구조 검증에서는 생활사건 스트레스, 기질, 대처양식의 직접경로만을 설정한 단순효과모

형과 생활사건 스트레스에서 기질과 대처양식이 부정적 정서를 매개하는 병렬매개모형, 그리고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 사이에 기질이 매개를 하고 기질과 부정적 정서 간의 관계를 대처양식이 매개하는 이중매개 모형을 검증하여 비교하였다. 검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듯이 이중매개모형의 적합도가 $\chi^2(\chi^2 = 40.85; df=11, p<.001)$ 를 제외하고는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다 ($NFI=.92, RFI=.80, TLI=.84, CFI=.94, RMSEA=.09$). χ^2 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모형을 검증하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기 쉬우며,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적합도 결과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하도록 권한다(이순목, 1990; Mulaik, James, Alstine, Bennett, Lind, & Stilwell, 1989). 이중매개모형에 대한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GFI, NFI, TLI, CFI는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며 RMSEA는 ‘받아들일 만한’ 수준을 보였다. 이중매개모형의 경우 생활사건 스트레스에서 대처양식에 이르는 경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로가 다 유의하였으며, 따라서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신경증기질이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고, 신경증기질이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회피대처양식이 부정적 정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문제해결 대처양식은 부정적 정서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이중매개모형이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남자와 여자를 그룹요인으로 지정하여 분석한 결과 남녀에 따른 모형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Delta\chi^2=4.964, df=1, p=.056$).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불안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해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기질, 그리고 대처양식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생활사건스트레스와 기질, 그리고 대처양식이 독립적으로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단순효과모형과 생활사건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질과 대처양식이 병렬적으로 매개한다고 가정하는 병렬매개모형, 그리고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질이 매개를 하고 기질이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처양식이 매개를 한다고 가정하는 이중매개모형의 비교 검증을 위해 공분산구조분석을 시행한 결과, 이중매개모형이 두 대안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불안과 우울은 서로 상관이 높았고 공분산구조모형에서도 불안과 우울의 측정변수가 부정적 정서란 잠재변인과 높은 상관을 보여 불안과 우울이 부정적 정서로 분류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우울과 불안을 부정적 정서로 통합해 치료하는 최근의 경향(Barlow et al., 2004)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대로(Angst &

Vollrath, 1991; McLaren & Crowe, 2002; Watson et al., 2005; Gomez, 1988; Seiffge-Krenke & Klessinger, 2000)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기질, 그리고 대처양식은 부정적 정서의 경험에 영향을 주었다.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많은 심리적 장애들이 스트레스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Angst & Vollrath, 1991; McLaren & Crowe, 2002)결과처럼 본 연구에서도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불안이나 우울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신경증기질이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기질이 생활사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의 경험을 매개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신경증기질과 부정적 정서 경험의 높은 상관(Watson et al., 2005)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신경증기질의 회피대처양식과의 정적 상관, 문제해결 대처양식과의 부적 상관(Bolger, 1990; Endler & Parker, 1990)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외향성기질과 부정적 정서경험이 부적 상관(Watson et al., 2005)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외향성기질의 문제해결 대응과의 정적 상관과 회피대처와의 부적 상관(Bolger, 1990; Martin, 1986; McCrae & Costa, 1986; Parkes, 1986; Rim, 1987)은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기존 연구에서 사용됐던 대학생들이 아닌 일반인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연구들이

표 3.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GFI	NFI	TLI	CFI	RMSEA
단순효과모형	128.33	14	.82	.76	.54	.77	.17
병렬매개모형	82.18	12	.89	.85	.67	.86	.14
이중매개모형	40.85	11	.96	.92	.84	.94	.09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민족 간의 정서의 차이(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4)에 기인했을 가능

성도 있다. 선행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외향성은 부정적 정서에 상당한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 Gomez & McLaren, 2006)으로 작용할 수 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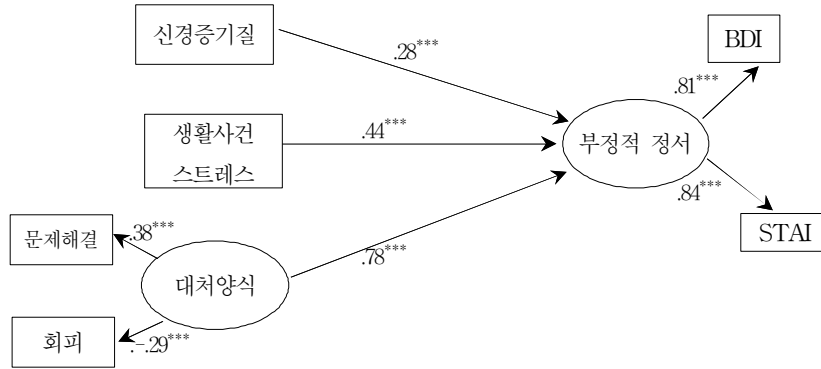


그림 1. 단순효과모형(**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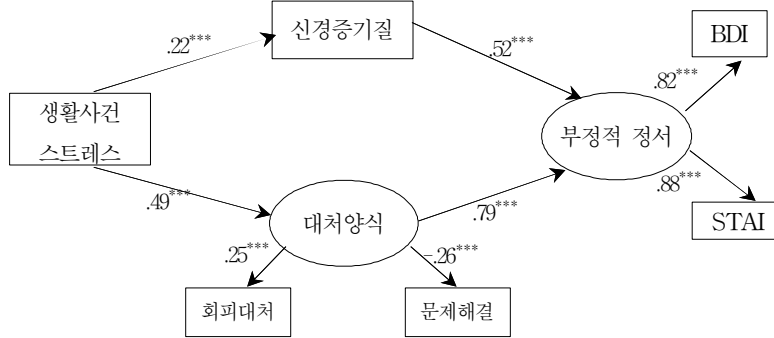


그림 2. 병렬매개모형분석(**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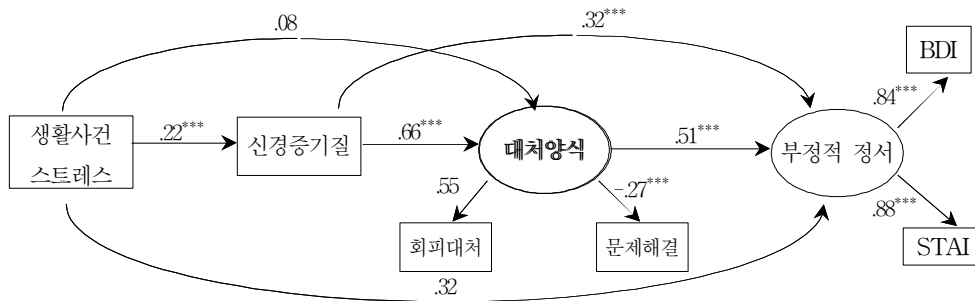


그림 3. 이중매개모형(** $p < .001$)

때문에, 본 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은 외향성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분산구조모형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기질과 회피대처양식은 부정적 정서의 경험을 중재하는 취약성(vulnerability: Ingram, Miranda, & Segal, 1998)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문제해결 대처양식은 신경증기질이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그 영향을 조절하는 회복력(resiliency: Gomez & McLaren, 2006) 요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불안과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의 위험 요인, 보호요인, 취약성 요인, 그리고 회복력 요인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신경증기질과 대처양식이 순차적으로 매개하고 있으며, 생활사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는 신경증기질에 의해 증폭되고 이는 부적절한 대처양식에 의해 더욱 악화되거나 적절한 대처양식을 통해서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신경증기질을 통제하고도 여전히 유효하고, 신경증기질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대처양식을 통제하고도 여전히 유효한 결과는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신경증기질이 독립적으로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제 3의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본 연구의 횡단적 성격은 비록 기질과 대처양식, 그리고 정서경험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밝혔더라도 그 변인들 간에 인과

적 관계가 있음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기질과 대처양식 외의 제 3의 변인이 기질과 대처양식, 정서경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각 변인들은 공통의 유전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지-감정 체계의 반영일 수도 있다(Watson & Clark, 1984). 적절한 설계의 종단적 연구가 기질과 대처양식의 정서경험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밝혀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는 자기보고만을 사용하고, 면접이나 관찰 또는 정서경험일지 같은 다른 보완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들이 사람들의 기억에만 의존했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다른 측정도구들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사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경험을 평가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설문에 답할 당시의 기분과 정서만을 측정함으로써, 사전에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회복된 사람이나 진단을 받았던 사람들이 보였을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생활사건 스트레스라는 개인외적 변인과 기질과 대처양식이라는 개인내적 변인이 개인의 부정적 정서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질과 대처양식 둘 다 어느 정도 성격변인(Vollrath, Torgersen, & Alnaes, 1995)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Costa, Somerfield, & McCrae, 1966; Hewitt & Flett, 1996)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고통이나 부정적 정서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Watson, Clark, & Carey, 1988) 불안과 우울에 생활사건 스트레스 같은 외적인 사건이 개인의 성격적 변

인을 통해 어떻게 중재되고 매개되는지를 밝힘으로서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활용할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 선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질(Digman, 1994)에 대한 개입은 쉽지 않겠지만, 신경증적기질이 높은 집단을 타겟집단으로 하여 부정적 정서(불안이나 우울장애)에 대한 예방적 개입은 가능한 일이다. 한편 대처행동도 개인에게서 안정적 요소(Costa, Somerfield, & McCrae, 1966)이긴 하지만, 적절한 대처행동에 대한 강화와 부적절한 대처행동에 대한 경험적 치료나 교육은 정서장애에 대한 치료나 예방적 효과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부정적 정서의 원인이나 취약성 요인에만 관심을 가진 반면,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적 대처양식이 신경증기질이 높은 개인들에게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회복력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앞으로 정신병리나 장애의 원인과 취약성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회복력 요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많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정택, 신동균 (1978). STAI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1, 70-72.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4). 한국어 정서단어의 분석 : 정서단어의 유사성구조와 정서체험의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8, 150-175.
- 유희정 (1990). 관상동맥성 심장병 환자의 심리적 특성 - 정신병적 경향성과 반응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목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이옥주 (2002). 고등학생의 성격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양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 487-501.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이영호, 송중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현수 (1985). 성격차원검사요강(성인용, 청소년용).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8.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14-18 and the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mirkhan J. H., Risinger, R. T., & Swickert, R. J. (1995). Extraversion: a 'hidden' personality factor in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63, 189-212.
- Angst, J., Vollrath, M., Merikangas, K. R., & Ernst, C. (1990). Comorbidity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Zurich Cohort Study of Young Adults. In J. D. Maser & C. R. Cloninger (Eds.), *Comorbidity of mood and anxiety disorders* (pp. 123-13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Barlow, D. H., Allen, L. B., & Choate, M. L. (2004). Toward a unified treatment for emotional disorders. *Behavior Therapy, 35*, 205-23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a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ck, A., Ward, C.,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 Billings A. G., & Moos, R. H. (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77-891.
- Bolger, N. (1990). Coping as a personality process: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25-537.
- Brown, T. A., Campbell, L. A., Lehmann, C. L., Grisham, G. R., & Mancill, R. B. (2001). Current and life-time comorbidity of the DSM-IV anxiety and mood disorders in a large clinical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 585-599.
- Brown, D. H., Chorpita, B. F., & Barlow, D. H. (1996).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dimensions of the DSM-IV anxiety and mood disorders and dimensions of negative affect, positive affect, autonomic arousa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 179-192.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Clark, L. A. (1989). The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Descriptive psychopathology and differential diagnosis. In P. C. Kendall & D. Watson (Eds.), *Anxiety and depression and overlapping features* (pp. 83-12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Clark, L. A., & Watson, D. (1999). Temperament: A new paradigm for trait psychology. In L. A. Pervin & O.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pp. 399-423). New York: Guilford.
- Compa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 393-403.
- Costa, P. T., Somerfield, M. R., & McCrae, R. R. (1996). Personality and coping. In M. Zeidner, & N.S. Endler (Eds.), *Handbook of coping: theory, research, applications* (pp. 44-61).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Digman, J. M. (1994). Child personality and temperament: Does the five-factor model embrace both domains? In C. F. Halverson, G. A. Kohnstamm, & R. P. Martin (Eds.), *The developing structure of temperament and personality from infancy to adulthood* (pp. 323-338). Hillsdale, NJ: Erlbaum.
- Endler, N. S., & Parker, J. D. A. (1990).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A Critic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44-854.
- Epstein, S., & Meier P. (1989). Constructive Thinking: A Broad coping variable with specific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332-350.

- Eysenck, H. J., & Eysenck, M. W. (1985).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A natural science approach*. New York: Plenum
- Folkman, S., & Lazarus, R. S. (1988). *Manual for the Ways of Coping Questionnaire*.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Gamez, W., Watson, D., Doebbeling, B. N. (2004). *Abnormal personality and the mood and anxiety disorders: Implications for structural models of anxiety and depression*. Manuscripts submitted for publication.
- Gomez, R. (1988). Locus of control and avoidance coping: Direct, interactional and mediating effects on maladjustment in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 323-334.
- Gomez, R., & McLaren, S. (2006). The association of avoidance coping style, and perceived mother and father support with anxiety/depression among late adolescents: Applicability of resiliency mode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1165-1176.
- Herman-Stahl, M. A., Stemmler, M., & Peterson A. C. (1995). Approach and avoidance coping: implications for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649-665.
- Hewitt, P., & Flett, G. L. (1996). Personality traits and the coping process. In M. Zeidner & N. S. Endler (Eds.), *Handbook of coping: theory, research, applications* (pp. 410-433). New York: John Wiley & Sons.
- Holmbeck, G. N. (1997). Toward terminological, conceptual, and statistical clarity in the study of mediators and moderators: Examples from the child-clinical and pediatric psychology literatur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599-610.
- Ingram, R. E., Miranda, J., & Segal, Z. Y. (1998).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Guilford, New York.
- James, L. R., & Brett, J. M. (1984). Mediators, moderators, and tests for medi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 307-321.
- Jorgensen, R. S., & Dusek, J. B. (1990). Adolescent adjustment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58*, 504-513.
- Kasvec, M. J., & Seiffge-Krenke, I. (1996). The differentiation of coping traits in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 651-668.
- Kessler, R. C., Nelson, C. B., McGonagle, K. A., Liu, J., Swartz, M., & Blazer, D. G. (1996). Comorbidity of DSM-III-R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the general population: Results from the US National Comorbidity Surve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Suppl. 30), 17-30.
- Kessler, R. C., Price, R. H., & Wortman, C. B. (1985).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531-572.
- Kobasa, S. C., Maddi, S. R., & Khan, S. (1982). Hardiness and health: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68-172.
- Lilienfeld, S. O., Waldman, I. D., & Israel, A. C. (1994). Critical examination of the term and concept of comorbidity in psychopathology research.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 71-83.
- MacKinnon, D. P., & Dwyer, J. H. (1993). Estimating

- mediated effects in prevention studies. *Evaluation Review*, 17, 144-158.
- Magee, W. J., Eaton, W. W., Wittchen, H-U, McGonagle, K. A., & Kessler, R. C. (1996). Agoraphobia, simple phobia, and social phobia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159-168.
- Martin, P. (1989). Personality and coping in survivors of myocardial infarc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 587-601.
- McCrae, R., & Costa, P. (1986). Personality, coping and coping effectiveness in an adult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54, 385-405.
- McLaren, S., & Crowe, S., F. (2002). The contribution of perceived control of stressful life event and thought suppression to the symptoms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in both non-clinical and clinical sample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429, 1-15.
- Mineka, S., Watson, D., & Clark, L.A. (1998). Comorbidity of anxiety and unipolar mood disord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 377-412.
- Mulaik, S. A., James, I. R., Alstine, J., V., Bennett, N., Lind, S., & Stilwell, C. D. (1989). Evaluation of goodness of fit index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5, 430-445.
- Nolen-Hoeksema, S. (1987). Sex differences in unipolar depression: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59-282.
- Nolen-Hoeksema, S. (1990).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Stanford, CA:Stanford University Press.
- Parkes, K. (1986).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environmental factors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77-1292.
- Rim, Y. (1987). A comparative study of two taxonomies of coping styles, personality and sex.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 521-526.
- Sarason, L.G., Johnson, J. H. (1978). Assessing the impact of life changes: Development of the life experiences surve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932-946.
- Seiffge-Krenke, I. (1992). Coping behavior of Finish adolescents: remarks on a cross-cultural comparison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3, 301-314.
- Seiffge-Krenke, I., & Klessinger, N. (2000). Long-term effects of avoidance coping on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617-630.
- Spielberger, C. D., Gorsuch, R., & Lushene, R. (1970).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test manual*.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Vollrath, M., Torgersen, S., & Alnaes, R. (1995). Personality as a long-term predictor of cop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 117-125.
- Watson, D., Gamez, W., & Simms, L. J. (2005). Basic dimensions of temperament and their relation to anxiety and depression: A symptom-based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9, 46-66.
- Watson, D., & Clark, L. A. (1984). Negative affectivity—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 states. *Psychological Bulletin* 96, 465-490.

Watson, D., Clark, L. A., & Carey, G. (1988).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their relation to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346-353.

Watson, D., Clark, L. A., & Harkness, A. R. (1994). Structures of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18-31.

원고접수일: 2007년 10월 9일

수정원고접수일: 2007년 11월 10일

게재결정일: 2007년 11월 19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7. Vol. 12, No. 4, 779 - 795

The role of temperament and coping style in the process of life event stress affects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Kyenghee Lee

Problem Gambling Counseling Center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Hoon-Ji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ffects of life event stress, temperament and coping style on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were analyzed by the method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wo hundred and ninety nine students who attended on-line psychology class were surveyed. As a result dual mediating model is approved superior than the other alternative two models. Which means the effect of life event stress on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is mediated by neuroticism and the effect of neuroticism on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is mediated by problem-solving coping style and avoidance coping style. The avoidance coping style aggravating the experience of negative emotion and the problem-solving coping style relieving the experience of negative emo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ssibilities of using the temperament and coping style as a tool of intervention an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temperament, coping style, emotional experience, emotional disorder